

남원 코리아 오픈 롤러대회 개막

14개국 선수 2187명 참가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대회로 자리 잡은 제12회 2019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스포츠대회가 17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14개국 선수 2187명이 참가해 스피드 트랙 및 로드, 슬라럼, 인라인 하키 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남원시는 시민들이 지역 최대의 체육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각급 학교별 단체관람 신청, 지역 기관 단체들과 참가국 결연 추진했으며,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 경기가 없는 날에 민속놀이, 한복입기 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전문화를 소개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스포츠대회가 17일 개막했다.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대회 성공을 위해 경기장 등 시설을 정비와 함께 두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대회분위기 조성, 선수단 환영, 위생·안전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6년 연속 대상

임실군이 자랑하는 '임실N치즈'가 201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공식품 분야)에서 6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들과 기업의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임실군은 '임실N치즈'라는 파워브랜드로 당당하게 대상을 거머쥐었다.

임실군의 치즈산업은 故지정환 신부께서 산양 2마리로 시작하여 50여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현재는 연간 25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활력사업으로 성장했다. 50여 년을, 4,000여두의 젖소에서 생산되는 1등급의 신선한 원유를 활용하여 임실치즈농협을 비롯한 13개



임실N치즈가 201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연속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소의 목장형 유가공 업체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치즈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난 13일 선종하신 지정환 신부님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치즈 및 유제품의 생산기반과 판매망 확충에 힘써 임실N치즈의 안

정적인 생산과 판매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라는 명성을 확고히 다져 임실N치즈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성장 동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급 완료

순창군이 올해 최초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175명에게 각 200만원씩 3억 5천만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 지급을 완료했다.

순창군이 이번에 지급한 대학 축하

금에 학부모들에게 크게 환영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순창군은 대학축하금 지급 외에 (재)순창군 육전장학회에서도 순창희망 장학생 2명, 성적우수 고등학생 14명, 예체능 특별 장학생 20명 등 총 36명에게

2,23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루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건강한 어울림 프로그램 참여 모집

남원시보건소는 재가암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주 1회 총 6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보건소는 현재 979명의 암환자를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방문간호서비

스는 영양보조제와 영양식이 및 간호용품 지원하는 등 암환자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방문보건 담당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에 임실군 덕치면 회문마을이 선정됐다.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사업 선정

임실군 덕치면 회문마을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2019년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에 임실군 덕치면 회문마을이 선정됐다.

임실군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2.5억원(도비 6.25억, 군비 6.25억)을 투입해 주거 경관 개선, 생활안전시설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은 농어촌 주거 취약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 환경 주거 등 주거경관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치면 회문마을은 면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 행정, 보

건, 복지 서비스 및 편의시설이 열악하며, 폐가 및 빈집 방치, 슬레이트 지붕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마을이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회문마을은 지방도색, 돌담정비, 슬레이트지붕 교체 등 주거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덕치마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사업은 농촌이 농촌다운을 찾고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폐적한 주거지 조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매아리

지리산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불법 탐방객 집중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취사·야영, 휴연 및 새끼출입, 음주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5월말까지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원 배래봉 철쭉제(4.20~5.19)와 중주 탐방로 개방(5.1)을 맞이해 특별보호구역 및 새끼출입, 산나물채취, 휴연·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대피소 및 주요 산 정상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야생식물) 채취는 자연공원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선정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오는 10월 17일까지 약 7개월간 구립한사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2019년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지난 2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추진하는 2017년 정부추약계중 어린이독서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약 7개월 동안 군립도서관과 구립한사랑 지역아동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주 1회 책읽기 프로그램과 도서관 견학, 인형극 공연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책 읽기' 사업에 활용된 도서 270여권(개인당 20권)을 가방과 함께 선물로 받게 된다.

순창군립도서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서관과 친숙할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과 인성함양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방문재활서비스 '주민 만족도 UP'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추진중인 방문재활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등급이 있는 거동불편 불능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방문재활서비스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주 1회 대상자들을 순회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 모니터링 및 방문진료를 주 내용으로 하며 운동지도 및 낙상

예방교육 등 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전형심 보건사업과장은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외출이 어려운 거동불편 불능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활의학과 부서와 연계하여 더욱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 추진

남원경찰서는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 켜기 운동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깜빡이는 자신의 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미리 알리는 신호이자 교통안전에 위한 필수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바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 빈번하면서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번

지기도 해 남원시에서는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포스터 부착, 홍보영상 송출 등을 통해 계도하고 있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깜빡이 켜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